

# 모성애 연기로 시청자 울리는 김태희 변호사 뒤통수 치는 능청연기 김혜수

tvN ‘하이바이, 마마!’·SBS ‘하이예나’ 출연

4~5년 만에 돌아온 안방극장  
성숙해진 연기로 시청자 눈길 잡아

5년 만에 돌아온 김태희는 반가웠고, 그의 엄마 연기는 시청자를 울리기에 충분했다.  
2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께 방송된 tvN 새 주말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1회 시청률은 5.9%(유료 가구)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에 인형 같은 예쁜 외모로 대한민국 대표 미녀로 꼽히는 김태희지만, 그는 작품을 할 때마다 유독 연기력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나 작품을 쉬는 5년 동안 결혼과 두 아이 출산을 경험하고 온 김태희의 모성 연기는 1회부터 시청자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태희가 제작발표회에서 “딸을 가진 엄마라는 것도 그렇고, 평소 제 모습과 가까운 캐릭터”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연기는 지금에서야 몸에 맞는 옷을 입은 듯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딸아이를 위해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절절한 모성을 표현하는 연기에서 특히 좋은 반응을 낳았다.  
‘하이바이, 마마!’는 사고로 가족 곁을 떠나게 된 차유리(김태희 분)가 재혼한 남편과 딸아이가 앞에 귀신으로 다시 나타나며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 장르로 풀어낸 휴먼 드라마다.  
지난해 이승과 저승 세계를 그려낸 ‘호텔 델루나’로 좋은 성적을 거둔 tvN이 비슷한 소재 드라마로 다시 한번 웃음지 주목된다.  
한편, SBS TV 새 금토극 ‘하이예나’가 첫 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로 막을 올렸다.  
2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방송한 ‘하이예나’ 1회 시청률은 7.7%~10.3%로 집계됐다.  
‘하이예나’는 2016년 ‘시그널’ 이후 4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김혜수와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대세’로 떠오른 주지훈, 장태유 PD의 복귀작이라 방송 전



김태희



김혜수

부터 화제를 모았다.  
‘뿌리깊은 나무’, ‘별에서 온 그대’ 등 히트작을 여럿 연출한 장태유 PD는 중국에 진출했다가 6년 만에 SBS로 돌아왔다.  
드라마는 1회에서 김혜수의 상반된 2가지 모습을 보여주며 시선을 붙잡았다. 김혜수가 연기한 정금자 캐릭터는 금수저 변호사 윤희재(주지훈 분)를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가 뒤통수를 치는

모습으로 통쾌함을 안겼다.  
돈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금자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윤희재가 부딪히며 생성해 낼 ‘케미’(궁합)가 앞으로 극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예나’보다 1시간 늦게 방송한 JTBC 금토극 ‘이태원 클라쓰’는 12.289%(유료 가구)로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 방탄소년단 “우리 음악은 ‘장르가 BTS’”

4집 ‘맵 오브 더 솔 : 7’ 판매

“장르가 BTS”인 음악,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입니다. 새로운 장르죠.”  
최근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을 내놓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그 래미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와 인터뷰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방탄소년단 정국과 뷔, 제이홉은 22일(현지시간) 레코딩 아카데미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맵에서 팔까지 다양한 장르를 망라했는데 앞으로 탐색하고 싶은 장르가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슈가는 “이제는 음악에 장르를 나누는 것은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디지털 트랙까지 20곡이 수록된 ‘맵 오브 더 솔 : 7’ 앨범에서 힙합과 록, 팝,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에다 가스펠 요소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를 만나들었다.  
최근 K팝의 폭발적 성장세에 대한 질문에 슈가는 “하나의 장르로서 K팝의 부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더 많은 재능있는 한국 아티스트가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재능있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영화 ‘기생충’의 작품상 등 오스카상 4



개 부문 석권에 대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RM은 “마치 우리가 그라미를 받은 기분이었다”며 “기생충은 정말 좋은 영화고 저도 극장에서 봤다”고 전했다. 그는 “K팝이나 한국 영화 이외 분야에도 한국에는 재능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며 “기생충’의 영예는 우리에게도 영광”이라고 덧 붙였다.  
RM은 이번 앨범과 전작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차이에 대해 “페르소나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나 좋은 것들을 대할 때 쓰는 사회적 가면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면의 진짜 그늘, 그림자에 관해 얘기했다”며 “그림자를 운명으로 인정하고 따오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작사가, 제작자, 엔지니어가 속한 음악 전문가가 단체로 함께 최고 권위 시상식인 그 래미어워즈를 주최한다.

## 나영석PD, 이번엔 패션... ‘마포 멋쟁이’ 내주 첫 방송

tvN 금요일 밤 11시

‘아이슬란드 간 세끼’, ‘라캐남’ 등 5분 짜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선보이는 나영석 PD가 이번엔 패션을 주제로 다음 주부터 시청자와 만난다.  
tvN은 나 PD의 5분 예능 ‘마포 멋쟁이’를 오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마포 멋쟁이’는 십년지기 송민호와 피오가 펼치는 패션 대결 예능이다. 같은 동

네에 살면서 나이와 직업도 같지만, 완전히 상극인 패션 취향이 관전 포인트다.  
나 PD가 “불현듯 아이템이 생각났다”며 송민호와 피오에게 전화 한 통으로 패션 대결을 제안하고, 이것이 프로그램 편성으로 이어졌다.  
연출을 맡은 박현용 PD는 “가장 가까운 현실 친구지만 옷 입는 취향만큼은 극과 극인 송민호와 피오의 케미스트리가 가장 큰 관전포인트”라고 밝혔다.

##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55 국회의원 선거 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충선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제2차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KBS 뉴스특보 <코로나 19> 30 살피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호기심대장 가토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2 50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특보-코로나19	2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00 뉴스브리핑
[3]	00 남북의 창(재) 40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의당>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5 MBC 뉴스 25 콘텐트 박물관 스페셜 바다의 경고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시사매거진 2580 특별판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45 배철수 점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가요무대	10 개는 훌륭하다	55 언니네 사롱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40 씨름의 희열 -태극장사 결정전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특보-코로나19 55 다큐 인사이드(재)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5 UHD 특선 다큐 기묘한 생물들	20 나이트 라인 50 양곡로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카 폴리 07:15 웅강한 소방차 레이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페파 피그 08:00 당동당 유치원 08:30 애코와 친구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츠 09:40 야옹명명 귀여워2 10:00 특집 부모특강-0.1%의 비밀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별일 없이 산다 14:45 물방 14:55 웅강한 소방차 레이(재) 15:10 로보카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엄마 까투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페파 피그(재)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知天命이 보는 <b>오늘의 운세</b> <b>2월 24일(음 2월 1일 丁酉)</b> ☎010-9790-8237	
 子	 午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36년생 가장 절실했던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48년생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매우 힘들고 험하겠다. 60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72년생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도 좋을 때가 되었으니라. 84년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남이 예상된다. 96년생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게 우려된다. 행운의 숫자 : 43, 67	42년생 식성함에 파묻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라. 54년생 상스러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으니라. 66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78년생 김사로 연결되며 발전 된 양상을 띤다. 90년생 기본적인 사실 속에서 중차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02년생 전환의 기회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자. 행운의 숫자 : 19, 80
37년생 지나치다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49년생 갑자기 서두른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야. 61년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73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실행하라. 85년생 적절하니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7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무난하게 처리 된다. 행운의 숫자 : 07, 83	31년생 가법계 통과 되겠다. 43년생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맞다. 55년생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자. 67년생 입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보인다. 79년생 락 얻은 과일의 이치이니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다. 91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58
38년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겨우 마칠 수 있겠다. 50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 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느니라. 62년생 절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74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6년생 참으로 난감 하리라. 98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2, 87	32년생 뻔히 알면서도 우려하였던 형편에 이르게 할 필요는 없다. 44년생 선택을 잘 하라. 56년생 연쇄적이다. 68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 되면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80년생 달갑지 않은 것으로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0, 66
39년생 경거망동 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 될 것이다. 51년생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63년생 불변하거나 부당한 것은 개선해야 효과를 본다. 75년생 확실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87년생 조절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99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39, 52	33년생 풍성한 성과의 환희가 있다. 45년생 적절한 융통성은 융활유 역할을 하리라. 57년생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9년생 소식은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느니라. 81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만 한다. 93년생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니 조심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6, 71
40년생 가법계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52년생 양호한 구도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64년생 지금 잘 관리해 둔다면 향후의 효용성을 높인다. 76년생 사소한 근심은 버려도 된다. 88년생의 육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00년생 소상하게 알아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2, 61	34년생 정확히 표적을 맞추는 형상이다. 46년생 작정하여 왔던 바대로 모색하면 유리한 판국으로 전환될 것이다. 58년생 실속은 없고 결단 번지르르하겠다. 70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정이 보인다. 82년생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 94년생 액면 그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91
41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꼭 문의해 봐야 한다. 53년생 분류를 잘 해둔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케 한다. 65년생 현실의 역경에 순응 한다면 미래의 결실은 늘어난다. 77년생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89년생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01년생 세부적으로 임해야만 무탈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9, 53	35년생 반드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47년생 드디어 수습 대국으로 접어들겠다. 59년생 참으로 귀함과 절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소금 팔러 갈러니까 비가 내리는 격이다. 83년생 방치한다면 패착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95년생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88